

# 감성유학의 지평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감성총서 21

— 김경호  
지음 —

공감장들

감성적 주체

감성적 근대성



감성총서 21

감성유학의 지평

THE HORIZON OF EMOTIONAL CONFUCIANISM

감성총서 21

## 감성유학의 지평

THE HORIZON OF EMOTIONAL CONFUCIANISM

인 쇄 | 2018년 6월 8일

발 행 | 2018년 6월 12일

저 자 | 김경호

발행인 | 정병석

발행처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등록 | 1981. 5. 21. 제53호

주소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화 | (062) 530-0571~2 마케팅 530-0573

팩스 | (062) 530-0579

홈페이지 | <http://www.cnup.co.kr>

이메일 | [cnup0571@hanmail.net](mailto:cnup0571@hanmail.net)

값 15,000원

ISBN 978-89-6849-506-9 (9381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18155)

이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임(NRF-2008-361-A00006).

## 왜 감성유학인가?

태산이 높다 하지만  
泰山爲高矣  
태산의 정상은  
泰山頂上  
이미 태산에 속하지 않는다.  
已不屬泰山  
- 정이程頤

### 1.

이 책은 한국유학을 근간으로 유학적 삶의 세계와 사유를 공부해 온 연구자가 최근 10년간 수행하였던 ‘감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의 관점Emotion-Humanities’을 유학연구에 적용하여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유학을 감성의 문제와 혼성하여 낯설게 보기를 시도한 철학적 사유를 『감성유학의 지평The Horizon of Emotional Confucianism』이라 이름하였다.

유학감성론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모색하고 있는 이 책은 전작인 『감성의 유학』(2014)의 연장선에서 신체화된 감정embodied emotion을 바탕으로 하여 유학적 사유에 흠여진 감성의 지평을 조망하고 있다. 그러한 감성유학의 지평은 ‘공감장들sympathetic fields’, ‘감성적 주체emotional subject’, ‘감성적 근대성emotional modernity’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유학감성론에 주목하고 이 논제를 새로운 학술적 과제로 탐구하고 있는 나의 시도는 우리시대에서 ‘과거 유학’을 복권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유학적 세계를 이제는 낯설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나는 ‘당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감성유학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적인 일상은 유학적 삶과는 너무 멀리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학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유학에 대한 ‘다시보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일상 세계를 재독해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재독해란 일종의 ‘재배치’와 같은 것으로, 유학이라는 ‘전통적인 것’을 ‘현대적인 것’들과 마주치게 하여 상호접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유학에 대한 재독해는 ‘횡단적 마주침’을 통해 같음과 다름의 경계를 재발견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감성의 범주에서 유학을 파악한다는 것은, 감성론이 이미 근대적인 학문방법론이 투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유학에 대한 근대적인 성찰이자 동시대

의 감성에 대한 유학적 환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감성유학Emotional Confucianism은 비록 오래된 과거의 유학적 감성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여기’ 현대의 동시대적인 감성적 근대와 조우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학의 ‘불연속적인 연속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사는 삶의 세계가 무의식의 근저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temporary’이라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또 변형되면서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삶은 오래 지속된다. 그러한 시간 속에 거주하는 우리는 어쩌면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시간에 의해 구성된, ‘현재의 과거’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 삶은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공간의 연속과 단절을 체감하면서 ‘경험의 공유점’을 발견하고, 만들어간다. 나는 그러한 경험의 공유점을 삶의 특이성singularity이 확장되어 횡단적 보편성transversal universality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단한다.

전통과 현대의 접속과 마주침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유학적 횡단성confucian transversality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보편성으로 사유해도 좋을 것이다. 새로운 보편성은 유럽적 근대에 의해 단일하고 유일한 보편성으로 획정되었던 근대성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다. 다름의 특이성을 갖는 복수의 근대성을 구성해 가는 것, 그것을 기획하는 것이 감성유학이기도 하다.

## 2.

유학에 대한 나의 학술적 관심은 이 책의 제목에 집약되어 있다. 나는 전작에서 제안했던 『감성의 유학(Confucian Perspectives on Emotions)』을 감성유학(Emotional Confucianism)이라는 새로운 어휘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 영역을 공감장들, 감성적 주체, 감성적 근대성 등의 세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유학의 많은 내용과 형식들이 그것들이 위치했던 당대에서 우리의 신체성을 바탕으로 ‘감성적인 것들’을 위주로 하여 직조되고, 또 동시에 변형되어 구성되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모든 당대는 언제나 ‘지금-여기’의 현대다. 과거가 누적된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현재는 중첩된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와 도래할 미래에 연속하면서도 불연속의 경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그러한 모호하면서도 중층적인 현실 경계의 미끄러짐에서 ‘감성적 주체’들에 의한 ‘공감장’의 구성과 ‘감성적 근대성’을 발견할 것이다.

유학의 많은 영역은 우리의 신체적 공공성을 전제로 하여 ‘감성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유학의 특성은 이것과 비견되는 지점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학을 구성하는 두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유학은 감성적인 것들과 대비되는 ‘합리적인 것’들의 각축이다. 합리적인 것들은 서구의 근대적인 계몽사상이 이성을 중시하기 훨씬 오래 전에, 유학적 사유를 작동하는 한 축이었다. 유학의 합리적인 것들은 감성과 분리된 이성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학은 합리적인 것들을 감성적인 것들의 영역에서 발견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들은 감성적인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감성적인 것들은 우리의 신체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들 또한 '신체화된 것'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감성유학은 단순히 감성적인 것들을 통해 신체화된 유학적 감정을 해명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몸이 이미 관계체적貫個體的transindividual이라는 점,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파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성유학은 주목한다. 따라서 감성유학은 내면적 탐구를 통한 자기수양으로부터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사유와 행위를 모색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실천적 태도까지 포함한다.

이 책을 통해서도 확인되지만, 나는 유학을 '생명', '감응', '공감'이란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유한다. 공자 이래로 유가의 핵심은 인仁과 의義라는 두 덕목의 내면화와 확산의 변주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 두 덕목을 약동하는 '생명'에 대한 깊은 옹호와 신뢰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생명에 대한 다양한 감感和 應의 방식은 획일화 되지 않은 다양한 교섭의 관계적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마치 존재의 대연쇄 방식으로 상호 관계적으로 연속됨과 동시에 불연속적인 접속의 지점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이체異體'들 사이의 감응을 통해 새로운 균형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상태는 감感和 應의 대상이 교호적 상호 비판과 수용에 의해 재구성되는 '공감의 지평'을

생성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와 같은 ‘생명’ ‘감응’ ‘공감’을 전제로 하여 유학은 현실적 삶의 지평에서 발견되는 부조리와 모순을 방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유와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 점에서 유학은 관념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한 인간과 사회를 조망하면서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무도한 권력의 전횡에 대해 비판하고, 삶을 유린하는 폭거에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윤리적으로 저항한다.

이러한 시도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면서 유학적 공감의 지평을 확보한다. 유학은 큰 틀에서 본다면, 생명에 대한 깊은 옹호와 신뢰를 전제로 하여 비판성과 윤리적 감수성을 세대에 걸쳐 전승한다. 생명성에 대한 존중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분투<sup>conatus</sup>의 역사는 조화로운 세계를 지속하기 위한 유학의 동력이다.

나는 이와 같은 유학의 생명성과 비판성, 윤리성과 공감성을 보편철학의 층위에서 감성론과 혼성하여 재구성해 내는 새로운 학술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학의 영역을 ‘감성유학’이라 명명하였고, 이것을 체계적인 학술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유학감성론’이다.

나는 ‘신체화된 감정’의 논의를 바탕으로 ‘감성의 문제에 대한 유학적 전망’을 제기하면서 저작인 『감성의 유학』에서 ‘유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스스로에게 던지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당시에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휘는 제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조작된 감성’과 구분되는 ‘신체화된 감성’을 통해 유학적인 삶과 사유가 구성된다는 점을 새삼 제기함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유학적 세계가 결국 우리의 ‘삶-정치’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유학은 단지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것만을 제안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을 전제한다는 발견은, 새롭지는 않지만 매우 의미 있는 맥락이다.

유학은 곧 ‘일상의 정치화였다’는 사실의 재발견은 그래서 중요하다. 현실의 ‘삶-정치적인 것’에 관여하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학적 삶의 세계에 대한 재인식은, 어쩌면 망각되었던 유학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감성과 유학 그리고 우리의 신체성이 경계에 연하여 연속적이고, 그러한 상호 마주침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삶이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이 책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감성유학이라는 새로운 낱말은 이러한 감성적 사유를 통해 만들어졌다.

### 3.

감성과 유학을 혼성하여 새로운 학술적 방향을 모색하는 나의 길은 아직도 먼 여정을 예정하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관심과 연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일면식이 없는 석봉래 교수의 『Embodied Moral Psychology and Confucian Philosophy』(Lexington Books, 2012)는 유학적 관점에서 감성에 대한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되었다.

그리고 ‘감성유학’을 구상하고 그 지평을 구획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동료 교수들과 조윤희 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김기성·양순자 교수는 감성과 근대적 사유에 관한 개념을 토론해 주었고, 이향준, 정영수 교수는 이 책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유익한 논의를 제공해 주었다.

이 외에도 내가 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힘을 준 많은 인연들이 있다. 일일이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 첫 번째 독자인 지서 엄마 김진희에게 감사와 위안을 전한다.

먼 길을 돌아서 ‘지금-여기’에 나는 있다. 언젠가는 눈발이 날리는 들판에서 ‘가지 않은 길’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길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길목에서 나는 그래도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 바랄 뿐이다.

2018년 6월 1일

김경호 쓰다

책머리에 \_5

제1부

감성유학의 공감장들

**혼인과 사회적 관계망: 16세기 호남유학의 공감장**

---

가족만들기	18
낙남현상과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22
소학 전승과 혼맥의 재발견	28
효행의 유교적 공감장, 소쇄원	39
관계망의 중첩과 호남학술의 부상	45
혼맥과 사회적 역동성	51

**불온한 공감: 존재의 삶-정치 너머**

---

구차투안과 수월빙호	57
국정 농단과 소기묘의 불온성	63
학우사우와 동류의식	70
신원과 도통	76
기·세·사의 삶을 위하여	82

## 여정과 소통: 율곡의 감성정치학

---

공론과 '삶-정치'	87
집단감성과 공론장	92
공감과 소통을 위한 통치자의 자질	103
수혜자 중심의 통치 시스템	108
지향과 현실의 충돌	113

## 제2부

## 감성적 주체

### 도래할 낙세: 감성적 주체의 열망

---

희구	122
불락의 파국성과 동학의 용기	127
낙세, 지금-여기, 도래할	134
각지불이와 흠탄	139
다시-열림의 지평	146
공감적 연대를 위하여	151

### 마주한 파국: 구한말 유교 지식인의 경계적 감성

---

파국의 감성	158
구한말 유교 지식인 모델	163
학술 경향과 사유의 진폭	169
임박한 파국의 징후들	177
회한과 율화의 응어리	185
시골 유학자의 죽음	188
인문정신과 내면의 보물	195

### 제3부

## 감성적 근대성

### 한국유교: 탈식민과 성찰

---

착종된 근대성	206
식민지 조선인 만들기 프레임	210
‘어느’ 식민주의자의 조선유교 비판	217
황도유학과 경학원	222
자괴와 몰염치	232
재생산되는 식민성	239

### 신자유주의시대: 부끄러움의 윤리학

---

즐과 교	251
왜 부끄러움인가?	255
어떤 감정의 현재	258
부끄러움, 어떻게 드러나는가?	264
부끄러움의 윤리학은 가능한가?	271
성찰적 부끄러움	278

### 우리 시대의 사랑: 경험, 서사, 의미화

---

사랑은 X다	284
사랑의 개념화 양상	290
애매모호한 사랑의 경험적 지평	296
사랑 경험의 의미화	303
사랑의 진화	309